

김민환의 세상읽기



민주당에 내일이 있을까?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11월 초에 가까스로 22%까지 올라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앞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12월 들어 다시 20% 밑으로 떨어졌다. 20% 언덕이 마치 강고한 마지노선처럼 민주당의 지지도 반등을 막고 있다.

여당 소속인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 변명의 소지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박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해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친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 왜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 추이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 안철수 의원 중심의 신당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창당조차 하지 않은 상태니까 가상의 정당에 불과하다. 안 의원의 언행은 예나 지금이나 모호하기 짝이 없다. 새 정치를 표방하지만 무엇이 새 정치인지 딱 부러진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팔복할 만한 거물급 인사나 참신한 신진

인사를 영입한 것도 아니다. 도무지 대중적 인기를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인기 하락의 반대급부는 안철수 신당이 고스란히 받아 챙기고 있다.

여론 전문가들은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그 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32%로, 새누리당 지지도(35%)에 근접했다. 그에 비해 민주당 지지도는 고작 10%였다. 민주당이 제 힘으로 점수를 따지도 못하고, 정부·여당 실정의 반대급부도 챙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가장 집고래대 명에교수는 민주당이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민주당이 정책적 능력이 없이 오직 반대만으로 차별성을 드러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최 교수나 김 교수의 지적은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문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라는 얘기다.

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황주홍 의원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 때보다 더 강경해지고, 민생과 더 멀어진 것 같다”며 “대

여투쟁만 강조하다 보니 자기혁신을 할 시간도, 우리 정책을 만들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전략홍보보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종북과 완전히 선을 긋는 전략적 선택, 분열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당 쇄신,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말에 민주당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 갈 방향이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민 의원이 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半信半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민주당의 실책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의 지지도 상승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르는 총선 공천에서 민주당은 집권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탄지같이 정체성을 핵심 공천기준으로 내세우며 행정능력이나 경륜이 있는 테크노크라트 출신을 거의 다 떨어트리고, 그 대신에 운동권 주변부를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대거 발탁했다.

그렇게 하여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정부·여당이 실수라도 해서 민주당이 반대급부를 챙길 법 하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민주당 점수를 깎아먹는 국회의원은 거개가 지난 총선에서 그 정체성 덕분에 비락출세를 한 이들이다.

언론의 가시거리나 만들고, 국회에서 고풍이나 지르고, 막말로 국민의 실소나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이들이 관을 치는 정당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의 지지도 담보상태는 공천 실패로 인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민병두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북 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친노, 비노의 분열도 극복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실용적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확고한 리더십을 통해 불출행동을 막아야 하고, 실용적인 안을 낼 수 있는 정책통이 잠재력을 발휘할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그런 초보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민주당에 내일이 있는가? 민주당이 그 답을 말할 차례다. <그대대 명에교수>

종교칼럼



종서 회암사 수도암 주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

지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유 속에서 평등하게 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과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소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국민들의 생각은 들으려하지 않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잘 살도록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국제 정형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소위 정쟁이라는 당리당략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매체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여당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단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당은 국민

을 책략과 낯조로 기만하는 즉, 국민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정당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야당은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을 사인하고, 현 대통령의 당선을 분별하게 인정하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당선 축하 전에 몰랐으니, 대통령선거 당선 확인 전에는 몰랐으니,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바른 의사 표시를 못 하게 했다면 야당은 대통령 당선 확인과 축하를 하지 말고, 대선 불복을 그 당시에 했어야 한다.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절차가 끝난 뒤에 다루는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당리당략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인가.

이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 모두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데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특히 호남과 영남으로 양분되는 극한적 지역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은 호남, 한나라당은 영남이 정치적 근거지다. 민주당이 영남쪽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영남쪽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지자체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별반 어렵지 않다.

지역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당선된다. 지역구민의 의사나 뜻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구민의 의사를 살피기보다는 공천에 신경을 쓰면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선거가 아니라 공천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의 사태를 단지 정당의 잘못이라고만 해야 할까.

선거에서 여론이 중요하데 그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 색에 따라서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선거를 한 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

기고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영화 ‘변호인’이 말하는 ‘상식’과 ‘진정성’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라는 대중적 형식의 매개체를 통해 송강호, 김영애, 광도원 등 연기와 배우들이 풀어내는 상식과 진정성에 대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영화 변호인을 노무현에 대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영화내용을 보지도 아니하고 개봉하기 전부터 평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편견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성이 아쉽다. 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88년 이후의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호불호와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을 터이지만, 최소한 1981년 부림사건 변호 이후 1987년까지의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의 삶은 좌우프레이밍에 갇힌 외눈박이의 시각으로 폄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현출되고 있다. 주인공 송우석의 생각조차도 부림사건을 변호하기 이전과 이후의 생각들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해동건설 아들의 ‘후진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

시위나 데모에 대한 생각, 언론에 대한 생각, 이런 복잡다기한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오토미 관

객들의 몫이다. 다만 영화의 주제 의식과 지향점은, 우리 주변의 이웃이 잘못도 없이 끌려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자극히 당연한 상식과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를 스스로 보신주의,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본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웃의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화는 되돌아보게 한다. 이웃의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과 냉소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부조리나 불합리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이는 곧 입장이 바뀌어 부조리와 불합리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영화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영화가 주인공을 인격의 완성체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투성이의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

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세속적인 이익을 얻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 힘들고 내면의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다반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관·검사, 변호사로 상징되는 법조인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적 시선으로 그리면서, 한편으론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선택의 순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가난의 실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인생역전의 기회를 잡고 난 이후, 아주머니의 절박하고 인간적인 부탁과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세속적인 기회의 포기 앞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이질감보다는 자신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 ‘변호인’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극적 완성도가 높은 상업영화로 성공하여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상식이 무엇인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미덕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지, 성찰의 기회를 주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社說

무등산 보호 위해 사유지 매입 서둘러야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무등산의 사유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사유지가 많다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 등 주민 피해는 물론 생태계 보존 및 편의 시설 설치 등 국립공원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는 점에서 사유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의 사유지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4.8%로,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34.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제도 도입 초기 지정된 지리산(23.5%), 설악산(14.2%), 한라산(3%)과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데다 면적이 비슷한 북한산(35.6%), 계룡산(50.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무등산공원사무소 오는 2017년까지 593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국립공원 면적의 73.5%(55,419km)인 사유지 비율을 55%(41,496km)로 낮추고, 장불재 일원 방송·통신

시설 통합,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등을 통해 국유지 비율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등산 국유지화는 정부의 시설 설치 등 국립공원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는 점에서 사유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핵심지역과 편의시설 등이 방치돼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올해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은 42억 원에 불과했다.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큰 이 유다. 사유지 매입 지연에 따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등산은 한해 수백만 명이 찾는 호남의 영산으로서 자연 생태계 보호와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권권이 합심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연말 사기 극성, 경찰·당국은 알고 나 있다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서민을 울리는 각종 사기가 관을 치고 있다. 스마트폰에 연말정산 안내와 연하장을 빙자하는 메시지를 보내 소액을 빼내 가는 ‘스미싱’(Smishing)이 대표적이다. 중·장년층이 IT기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집중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연말연시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XX제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클릭 확인하세요’, ‘연하장이 도착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세요’ 등의 내용을 보내고, 궁극해 하며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바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이르는 범죄다.

광주경찰청에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980건에 달한다. 스미싱 피해는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 아예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이미 꼬리를 감춘 뒤여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연말에 집중되는 종교차 매매사기도 서민을 울리고 있다. 해가 바뀌면 자동차 연식이 더해져 연내에 종교차를 거래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악용해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돈만 챙겨가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이를 당하는 사람이나 신속할 경찰도 속수무책이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로서는 사기를 당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스미싱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종교차 매매 사기에 속아 목돈을 잃게 되면 심한 허탈감뿐만 아니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렇듯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생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딱하다.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경찰과 당국은 예방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알선서 방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無 等 鼓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러시아혁명 직후인 1919년 알타이 지방의 쿠리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시절 가족이 시베리아로 강제이주를 당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시인을 꿈꾼 재주 많은 소년이었다.

그의 삶은 19살 때 징집돼 기갑부대에 배치되면서 바뀌었다. 발명가 기질이 다분한 칼라시니코프의 첫 작품은 탱크에 장착된 기관총에서 발사되는 탄환 수를 자동으로 계

AK-47 소총

산해 주는 장치였다. 하지만 칼라시니코프의 역작은 1947년에 탄생한다. 일명 AK-47 자동소총이다. ‘압도마트(자동) 칼라시니코프’의 약자와 개발연도인 1947년에서 따온 것이다.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에 300m에 달하는 사거리, 가볍고 다루기 쉬운데다 내구성까지 갖춰 개발 즉시 소련군의 주력화기가 됐다. 이후 전세계로 확산돼 정규군은 물론 반군, 마피아의 애장품이 됐다.

1960년대에 제3세계 혁명의 아이콘으로 불릴 정도로 공산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소총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미국의 M-16과의 첫 만남도 베트남전쟁이었

다. 1963년 베트공은 AK-47을, 베트남은 M-16을 주력화기로 한판 승부를 벌였다. AK-47의 잔재는 곳곳에 스며있다. 모잠비크 해방전선은 포르투갈과 전쟁을 벌일 때 AK-47을 사용해 1975년 독립했다. 모잠비크 국기에 AK-47이 새겨진 이유다.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5월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미군에 사살될 때도 그에게 곁에 AK-47이 있었다. 하물며 미국

농구스타 안드레이 키릴렌코의 별명도 AK47이다. 러시아 출신 그의 이름 첫자에 등번호 47을 붙인 것이다. 칼라시니코프가 9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60여 년 동안 AK 소총은 107개 국에서 1억 정 가량 팔려나갔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보다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가 ‘최대 살상성’을 기록한 최고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90세 생일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발명했다. 그 무기가 사용돼서 안 될 곳에 등장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의 향변을 타할 순 없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